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강화 및 반려동물 신종 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 한 대책 추진

●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겨울 철새의 도래 등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AI(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전국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 차단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역실태 점검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 가동·소독 실시 여부,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편성하여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 농장 소독실태, 집중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 4일 미국 아이오아주의 13세 고양이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는 미 농업부의 발표에 따라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로부터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배포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가장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동물임을 감안하여 취해진 것이다.

주요 조치로는 홍보물(반려동물의 사육·관리방안) 제작·배포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실천 등 인터넷을 통한 on-line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용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획 등이 포

함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일 경우 일정기간(5일) 반려동물을 환자로부터 격리, 이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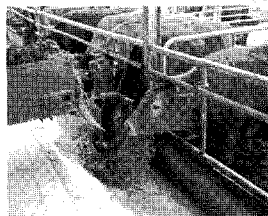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농가별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가 반려동물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 소식



◎축산물의 항생제, 이젠 걱정 마세요

농진청, 버려지는 부산물 이용, 항생제대체 사료 개발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의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사용량이 높아 소비자들의 항생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2012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완전 금지할 예정으로 항생제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천연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과 케르세틴을 다량 함유한 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했을 때 면역력을 향상시켜 생체 방어력을 강화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체량이나 품질 면에서 항생제보다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농산 부산물이나 식품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레스베라트롤 사료는 뽕잎이나 줄기 부산물을 이용하였으며 포도껍질이나 포도씨와 같은 부산물에도 많이 들어 있어 사료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케르세틴 사료는 양파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상품가치가 없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버려지는 양파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재활용이라는 장점도 있다.

개발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했을 때, 항생제를 급여한 것과 비교해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개선되었으며 가축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론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 급여한 결과, 기존제품이나 항생제에 비해 증체량은 3.8~7.3% 증가하였고 닭고기 불량률은 1.5~2배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항생제 대체물이 있지만 효과나 경제성면에서 항생제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항생제 사용과 비슷해 농가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은 현재 실용화를 위한 대량생산체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개발 사료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리승용 원장은 “항생제 사용이 점차 억제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시급한데, 개발 사료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점과 버려지고 있는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에도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한 항생제대체물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장 홍성구, 영양생리팀 김상호 031-290-1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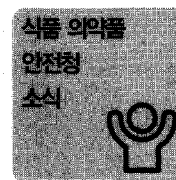


◎ AI 발생 대비, 가상훈련 실시

가상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방역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연습하기 위한 것으로 20일 실시된다. 훈련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도, 23개 시·군이 참여해 인터넷망(디지털 가축방역시스템)에서 문서를 송수신하는 도상훈련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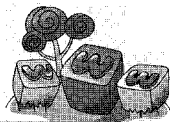
AI 유입이 우려되는 관심단계에서부터 확산 상황까지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대응할 방역조치 사항(긴급방역대책 수립, 살처분, 이동통제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검역원 관계자는 “훈련은 업무담당자가 보완된 '가축질병 위기메뉴얼'과 'AI 긴급행동지침' 상의 단계별 대응 및 절차를 숙달하고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점검 등 비상시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변종바이러스 출현 등을 우려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개인위생 준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천과 의심가축은 신속히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집중 대상자로 명단이 통보된 돼지,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에서는 시·군의 대상자 선정 공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27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도 주문했다.



◎ 식약청, 백신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 15명 증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백신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이 대폭 보강되어, 예방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과 '바이오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바이오 주권 : 자국 내에서 백신과 필수약품 등을 생산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우리의 경우, 국내 생산 가능 백신이 약 16%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0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 15명(순증 10명, 전환배치 5명)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백신의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본청 생물제제과에 심사전담인력 6명이 보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신속심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의 국가검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에 검정전담인력 9명을 보강, 기존 16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국가검정 인력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센터장 밑에 혈액제제의 국가검정을 전담하는 「혈액제제검정팀」을 신설하여, 국가검정체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올 11월말에 있을 WHO 국가검정업무 실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신속한 허가·심사와 국가검정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존의 A형 감염,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소식



◎충남 청양에서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는 11월 4일 충남 청양군 문예회관에서 11회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성재 부원장은 “청정도시인 청양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식품산업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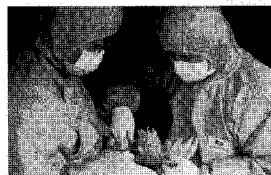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벤처아카데미를 총 11회 개최해 1천여 명의 벤처농업인이 수강해 벤처농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시환 청양군수가 환영사를 했다. 벤처아카데미 첫 강의는 우리 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과 연계한 정부의 식품과 산업추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했다. 이어 식품기술사협회 이형재 회장이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제언’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뒤 (주)도올 F&B 강덕원 대표와 우리농연구회 정재환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그리고 연구원 벤처농기업 입주업체인 (주)바이오믹스 홍성빈 대표가 ‘특작물 가공산업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뒤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AI 상시방역대책 추진 강화

방역대책상황실·초동방역팀 운영 및 농가교육홍보 강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의심

축 발견 시 초동방역팀을 긴급투입시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근절시킬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닭·오리 등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I 방역대책상황실은 지난 10월부터 2010년 4월 말

까지 본부와 8개 도본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시료채취 등 AI 예방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방역본부가 11월 중순까지 추진한 AI 임상예찰은 총 19,150호이며, 모니터링검사를 위한 382천점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AI 의심축 신고 또는 모니터링 검사에서 양성 검출 시 해당농장에 대하여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한 초동방역팀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보다 완벽한 초동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초동방역팀 가상훈련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AI 발생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 초동방역팀 운영현황 : 총 159개팀

경기(29), 강원(18), 충북(12), 충남(17), 전북(14), 전남(23), 경북(22), 경남(22), 제주(2)

• 가상훈련 실적 : 본부주관 11회, 62명 참여 / 8개도 본부 14회, 149명 대상

• 교육 실적 : 8개도본부 14회, 229명 대상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는 '방역위생' 정보지와 AI 예방홍보 리플릿 등 맞춤형 홍보물을 이용하여 농가예방수칙, 의심축 발견 시 신고요령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AI 긴급방역 가상훈련에 본부와 경기·강원도 본부 초동방역팀 6개팀 18명이 참여하여 AI 발생 시 취해야할 단계별 방역조치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 “계란,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安心)계란' 출시
• 농협은 계란생산 품질관리를 강



▲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디자인

가에는 판로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 양재점 등 10개의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농협안심 계란'을 출시한다.

농협안심계란은 농협이 ▲혈통, 사양, 시료 등을 통일해 규격란을 생산·유통하고 ▲생산이력제, 콜드체인 적용 등으로 품질안전성을 강화 하고 ▲기존의 4~5단계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해 비용을 절감한 상품이다. (기존 유통구조는 4~5단계(농가...산지수집상...도매상인...소매상인...소비자)였으나 3단계(농가...계란유통센터...소비자)로 축소)

안심계란 종류는 3가지(웰빙란·등급란·유정란)가 있으며 등급란의 경우 60주령 이하의 젊고 건강한 닭에서 생산한 1등급 이상의 계란 으로서만 시판된다. 농협은 안심계란을 2010년에 2억개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국내 판매량 100억개 중 20억개를 판매해 계란유통시장의 2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성우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향후 '농협안심계란'을 통해 국내 계란 산업의 유통구조를 선진화시켜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위해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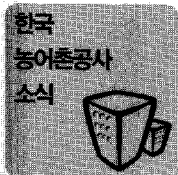
aT, 이마트·시군 유통회사와 직거래확대 업무협약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와 이마트(대표 이경상), 5개 시·군 유통회사는 12일 성수동 이마트 본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aT와 이마트, 시·군유통회사는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시·군유통회사의 우수 농수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 실시, 시·군유통회사는 산지 유통정보 제공, aT는 각종 행정사항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군유통회사는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지난 4월 농어업인, 농·수협, 시·군 지자체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출범했다. 관내 농수산물의 2/3 이상을 취급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보은, 고흥, 완도, 화순, 의령 등 6개 유통회사가 운영 중이다.

윤장배 aT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유통공사와 산지 조직, 대형유통업체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시·군유통회사는 이마트 수도권 주요지점에서 농수산물 홍보·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특판행사는 12일(목)부터 18일(수)까지 일주일간 이마트 본점(성수점), 양재점, 월계점, 상봉점, 죽전점 등 5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유자차, 쌀, 양파, 옥수수 등 각 시·군유통회사의 지역특산물 증정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 세계 기아인구 증가 근본 원인은 물 부족

■ 세계 식량부족의 근본원인은 물 부족에 따른 것이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강수부족으로 인한 사막화로 기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 부족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하천

부영양화,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며 수인성 질병 및 환경위험 물질증가로 인하여 가난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뭄 등 기상재해에서 오는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 및 관개 시설 확충을 통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한국농공학회(회장 서원명) 한국물포럼(총재 박은경) 공동 주최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촌용수관리 심포지엄에서 국립농업과학원 강기경 박사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박사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기아인구는 약 8억 5천만 명에 이르며 이중 선진국은 1천 5백만명으로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각각 3억여명과 2억여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아인구의 증가는 가뭄 등 물부족에 따른 식량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집중 강우로부터 저수 및 관개시설을 보호하고 가뭄에 대비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 강우로 많은 양의 빗물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댐이나 저수시설, 소형 물웅덩이 조성 등으로 빗물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활용 등 물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잉여 용수를 생태계에 재분배하는 등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학계, 농업인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